



제주학연구센터 와 함께하는

‘生生제주어’,



제주매일



제주매일 대표이사
고 장 원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

제주매일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센터와 함께 연재했던 웹툰 기사 2025 “생생제주어” 30편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선보이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어는 제주인의 삶과 정신이 담긴 제주 문화의 정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언어유산입니다. 하지만 소멸 위기에 직면한 현실 속에서, 제주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젊은 세대는 물론, 모든 독자들이 그림과 이야기로 제주어를 친근하게 접하도록 한 기획 연재가 이렇게 귀한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자는 제주어 보존에 대한 제주매일의 책임감과, 여러 전문가 및 실무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먼저, 본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내용을 제공하고 글을 맡아주신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님과 흥미로운 그림을 그려주신 이건희 작가님, 그리고 감수로 수고해주신 김미진 박사님, 권미소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기획의 취재 및 지면 구성은 책임진 편집국의 한애리 부국장과, 책자 발간 실무를 도맡아 완벽하게 이끌어준 사업국의 강재관 국장, 문지영 팀장을 비롯한 제주매일 임직원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책자가 독자 여러분께는 제주어의 재미를 선사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제주어 교본이자 문화유산으로 오래도록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생생제주어” 책자를 통해 제주어 부활의 희망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주학회 부회장, 한국조류학회 이사,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위원,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중.



저서

『제주조류도감, 공저』, 『새들의 천국, 제주도』,
『제주 바다를 누비는 매, 공저』,
『한라산 총서-동물편, 공저』, 『하얀 평화를 지키는 제주의 백로, 공저』,
『제주어에 담긴 제주다움』, 『도요새와 물떼새의 아름다운 동행, 공저』 등.

그림 / 이진희(와인도둑)

만화 강좌 플랫폼 지앤와이스튜디오 대표,
서귀포시청 평생교육원지정 직원인 체험특강 멘토 만화가&강사.
제주농아복지관 웹툰 강사,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웹툰 메인 강사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forwebtoonist>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webtoonist_life/

웹사이트 : <https://forwebtoonist.com>

감수 / 김미진 박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권미소 박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기자 / 한애리 부국장(제주매일)



CONTENTS

① 수고하셨습니다.	5	⑯ 혼자	35
② 방아깨비	7	⑯ 방심	37
③ 보일러	9	⑯ 똑바로	39
④ 가장 아름다운 지게	11	⑯ 진드기	41
⑤ 팽나무	13	⑯ 낙서	43
⑥ 종달새	15	⑯ 딱따구리	45
⑦ 상추	17	⑯ 참새	47
⑧ 삐?	19	⑯ 촘항	49
⑨ 옥돔	21	⑯ 꿩알	51
⑩ 보말	23	⑯ 젠장	53
⑪ 깨끗하게	25	⑯ 불턱	55
⑫ 석공	27	⑯ 바탕	57
⑬ 갈옷	29	⑯ 쟁기	59
⑭ 때죽나무	31	⑯ 피력떡	61
⑮ 너랑나랑	33	⑯ 회오리바람	63

“호저 오라, 오젠 허난 복삭 속았저”

제주어
줄자로 연구소

–수고하셨습니다–

Q 웹툰니스트라이프



‘수고하셨습니다’의 제주어는 ‘폭싹 속았수다’가 맞나요?

: 2025년 넷플릭스 인기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시대와 세대를 넘나드는 감동 그 자체였다. 그런데 ‘폭싹 속았수다’라는 제주어 표기가 잘못됐다고 설왕설래, 옥신각신 말이 많았다. ‘폭싹’은 비표준어로, ‘폭삭’에서 온 말이다. 제주어로는 ‘복삭’이다. 그리고 ‘속았수다’는 ‘고생하셨습니다’ 또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이며 제주어로 ‘속아수다’ 또는 ‘속았수다’라고 표기한다. ‘폭삭’은 건물이 완전 부서지는 모양, 주름살이 심할 정도로 나이가 든 상태, 너무 힘들어 기운이 거의 없는 모양을 뜻한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지난 2025년 4월 11일 제주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도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 5관왕(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 지질공원, 인류무형유산, 기록유산)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다. 제주 토박이를 비롯해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뤄낸 쾌거이다. ‘섬’이라는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차별금지와 평등 세상을 누리고자 한 아방(아버지)과 어명(어머니)의 덕분이다.

말[馬]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했던 시절에 타향살이는 서러움과 눈물로 가득했다. 아이가 육지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에 왔을 때 ‘오젠허난 복삭 속았저(오느라고 정말 고생했다)’라고 하며, 때로는 어머니가 고된 밭일이나 물질을 끝냈을 때에도 ‘복삭 속았수다’라고 한다.

“저 심방 춤은 이 동네에서 최고라”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방아깨비—

Q 웹툰스트라이프



쿵덕쿵덕 ‘방아깨비’를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방아깨비는 메뚜기목에 속하는 곤충으로, 제주에서 보통 ‘심방말축’이라고 한다. 또 ‘산뒤말축’, ‘산디말축’, ‘산전불라기’, ‘산전불락’, ‘상동말축’, ‘심방만축’, ‘심방만축’이라고도 한다. 메뚜기를 제주어로 ‘말축’, ‘만축’, ‘만촉’이라고 하는데 방아깨비는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축’ 앞에 ‘심방’, 산디, 산전, 상동’ 등이 추가된 것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 곳곳에는 신(神)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1만8000의 신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다. ‘영등할망, 삼승할망, 조왕할망, 가문장아기, 자청비, 강림차사’ 등 여러 신들이 어로, 수렵, 축산, 농경, 주거 등을 관장한다. 정성을 다하여 굿상을 차리고 노래와 춤으로 길흉화복과 무사안녕을 빈다. 이때 굿을 주관하는 무당을 제주에서는 ‘심방’ 혹은 ‘신방’이라 부른다. ‘심방’은 다른 사람에 비해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심방의 굿놀림이 방아깨비와 비슷하다 하여 ‘심방말축’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 어릴 적에 손으로 방아깨비의 뒷다리를 잡고 있으면 마치 방아를 짚는 것처럼 연신 몸을 위아래로 흔들어 댔었다. 그 모습이 방아를 짚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붙여진 표준어 이름 방아깨비보다 제주어 ‘심방말축’은 신령스러운 제주와 더욱 어울리는 듯하다.

“쉐뚱도 물뚱도 구허젠 허민 쉽지 안허여”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보일러–

Q 웹툰니스트라이프



‘방에 불을 때게 만든 난방용 아궁이’를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굴뚝’ 또는 ‘굴목’이라고도 한다. 현대의 주거 형태에서 ‘굴뚝’은 보일러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의 영주십경 중, 녹담만설(鹿潭晚雪)은 늦은 봄까지 백록담 정상에 눈이 쌓여 있는 풍광을 뜻한다. 두꺼운 겨울옷을 벗고 봄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다가도 멀리 한라산 정상에 녹지 않은 눈을 보면, 따뜻한 봄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자연에서 원료를 구해다가, ‘굴뚝’에 불을 지폈다. 보통 연료는 소똥(쉐똥), 말똥(물물똥), 솔방울, 솔가리, 마른 나무밑동 등을 이용했으며, 먼저 가서 차지하는 게 임자였다. ‘굴뚝’에서 소똥과 말똥이 타면서 발생한 열이 구들장(제주어로 ‘구들돌’)을 달구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원리다. 어느 정도 불이 잘 붙으면 ‘굴뚝’ 어귀를 넓적한 돌멩이로 막았는데, 이를 ‘굴뚝돌’이라 부른다.

재에 물을 넣고 반죽해 ‘굴뚝돌’과 어귀 사이를 잘 막아야 불기운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방으로 뜨끈한 기운이 잘 전달된다.

“무지개보다 예쁜 지게를 쥐본 적이 있니?”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가장 아름다운 지게-

Q 웹툰니스트라이프



지게는 지게인데 기쁘게 지는 지게는 무엇일까?

정답은 ‘지꺼지게’이며, ‘기쁘고 만족스럽게’ 혹은 ‘기분좋게’와 같은 의미다. 지게꾼은 등에 지게를 지고, 짐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다. 곡식, 물, 항아리, 돌 등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꺼지게’는 누구나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오늘이 가장 짊은 날’이라는 노랫말을 들을 때마다 저절로 덩실덩실 춤추고 싶어진다. 행복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못찾는 사람들이 많다. 제주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전네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어떻 펜안허우꽈’이다. ‘어떻게 편안하십니까’라는 말이다. 이웃의 안녕과 행복이 곧 나의 기쁨인 것이다. 상대방도 덩달아 묻는다. 늘 힘들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도맡아 왔기에,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다.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AI)이 하지 못하는 일에 열중하는 분들이 많다. 상대방을 속여서 얹기로 얻은 보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실과 신의를 통해 짊어지는 짐은 무겁지 않는 법이다. 하기 싫은 일인데도, 기분 상하지도 않고 웃음을 가득 담은 ‘지꺼지게’를 지고 다녀보자. 순간 세상이 무지개처럼 밝게 보일 것이다.

“나무랄 데가 없으니까 나무지!”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팽나무—

Q 웹툰니스트라이프



‘팽나무’를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폭낭’이다. ‘나무’를 제주에서는 ‘낭’, ‘남’이라고 한다. 대나무로 만든 장난감용 총에 딱딱한 팽나무 열매를 넣고 쏘면 ‘팽’하고 날아간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제주 사람들에게는 ‘폭’하고 들렸나 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의 마을 어귀마다 아름드리 서 있는 팽나무는 마을의 상징이다. 신목으로 좌정한 팽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기도 하며, 동네에 이사 오면 가장 먼저 이사 왔음을 알리러 가는 곳이기도 하다. 팽나무는 마을 한복판이나 갈림길에 우뚝 서 있으면서, 어르신의 쉼터가 되어 주고 무엇이든지 척척 해결해 주는 민원 창구이다.

동네와 이웃의 가정사는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가득하며, 바닷가의 불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어떤 마을에는 팽나무가 서로 의지하며 마주 보고 있으며, 지나가는 외부인을 검문하기도 한다.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까마귀도 불러들이고 마을 사람들의 의자가 되어 주기도 한다. 때로는 그늘과 우산이 되어 주고, 땅으로 내려온 낙엽은 흙으로 돌아간다.

커갈수록 마을의 보배로 변해가니, 훔치려는 이가 어슬렁거린다.

드론보단 오래도록 하늘에 떠 있는 ‘생이’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종달새–

Q 웹툰니스트라이프



‘종다리’는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종다리’는 ‘종달새’라고도 하며, 제주어로는 ‘하늘생이’, ‘드릇생이’, ‘종조리’, ‘종주리새’, ‘종지리새’, ‘주주머리’, ‘주중머리’, ‘비죽생이’, ‘좁생이’, ‘총데기’라고 한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의 방언과 지명 그리고 제주역사에 평생을 바친 박용후 선생님의 ‘최남의 항도 모슬포(1990)’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모슬포 평야에 종달새가 유달리 많아서 봄철 푸른 보리밭에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 노래하다가 쏜살같이 곤두박질쳐 내리는 모양은 봄 풍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해 전 눈이 많이 내려, 들이 눈에 덮이게 되자 종달새는 먹이를 찾아 인가로 모여들었는데 무지한 사람들은 엽총으로 마구 잡아먹었기 때문에 급격히 줄어져 버렸다.’

‘하늘생이’는 하늘 높이 올라 지저귀는 습성에서 그리고 ‘드릇생이’는 들판에서 지내는 새라서 각각 이름이 붙여졌다. 전통적인 천연 농법에서 트랙터와 농약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드론으로 대체되는 첨단 농업으로 바뀌게 되자 종달새는 땅으로 내려오지 못해 아우성이다.

‘상추가 상처받으면 정말 큰일이지…’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상추-

Q 웹툰니스트라이프



‘상추’를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바로 ‘부루’이다. 석주명 선생은 ‘제주방언 연구(1947)’에서 이를 가리켜 ‘생치’라 했다. 상추는 유럽,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중국 이름인 생치(生菜)에서 ‘상추’처럼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루’는 ‘상추’를 가리키는 순우리말로, 제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된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우영팟디 부루씨 빼엉 놔두난 잘도 어랑어랑 캄서’를 표준어로 풀이하면 ‘텃밭에 상추씨 뿌려서 놔두니까 아주 야들야들 자라고 있어’이다. 여기서 ‘어랑어랑’은 쪽파, 채소, 시금치, 상추 등 채소 따위의 잎이 연하고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고 모양을 의미한다. 제주 사람들은 ‘우영팟’에서 채소를 바로 채취해 반찬을 장만할 수 있어서 언제나 건강한 밥상을 즐겼다. 씨를 뿌리고 나서 정성을 다해 키우니, 맛이 최고일 수밖에 없다.

커가는 모습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고 비슷하게 자란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뭉클해진다. 자식 사랑도 그렇다. 어렵게 키운 형제자매들이 오순도순 자라는 상추처럼 남들에게도 늘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게 부모 마음이다.

‘삐’딱하게 바라볼수록 가치 높아진다고요?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삐?—

Q 웹툰니스트라이프



‘삐삐 삐 자로 끝나는 말은 ‘눔삐, 상삐…’

‘눔삐’와 ‘상삐’는 모두 ‘삐’로 끝나는 어휘여서 관련이 있을 듯싶지만 사실 연관성은 없다. ‘눔삐’는 채소 무를 말하는데 보통 무의 뿌리만을 일컫는다. ‘상삐’는 상을 쓰는 빗자루라는 의미로 행주를 말한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한때 자연산(유기농)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지만 요즘은 의심부터 하게 된다.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 신종 수법이 많은 데다가 원산지를 속이는 사람들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장에서 먹어보기도 하는데도 눈뜨고 코 베이니 도통 진짜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일까? 자연산(유기농)보다는 제주산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제주산 고사리를 비롯하여 무, 감자,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콩, 메밀 등은 물량이 달릴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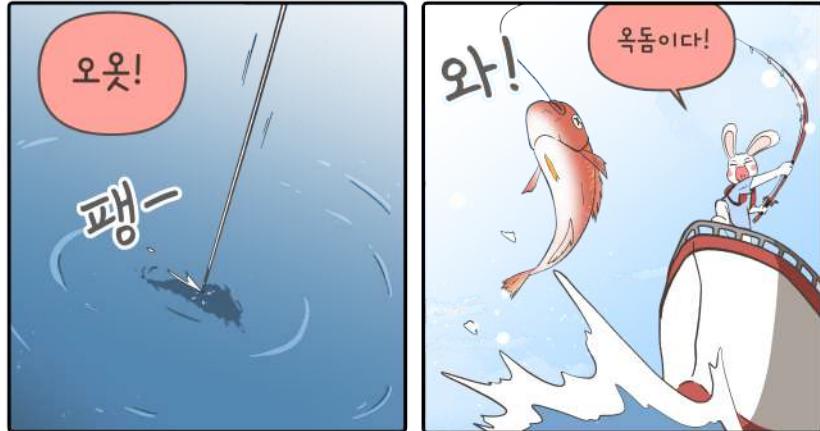
그러나 아무리 제주산이라고 자랑해도, ‘삐’딱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상대방을 신뢰하되, 물건의 상태는 꼼꼼히 따져야 한다. 무는 밭에서 수확하는 작물이라 흙이 묻어 있으면 구매력이 떨어지듯 밥상도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야 손님들의 재방문이 높아진다. 제주산 음식값이 너무 높다고 불만이 많은데 정작 공급자는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농어민들도 소상공인도 제주의 미래 가치를 좀 더 꼼꼼히 살펴야 할 때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귀한 반찬은?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옥돔—

Q 웹툰니스트라이프



‘옥돔’을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옥도미’, ‘오톰’, ‘셍선’, ‘셍성’, ‘솔라니’, ‘솔례기’등은 모두 제주에서 ‘옥돔’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 음식의 진가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추사 김정희는 제주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육지에 있는 부인에게 반찬 타령을 했다고 한다. 지역민들은 추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눈치 보였을 것이다. 제주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옥돔을 비롯하여 은어, 전복, 미역, 표고, 귤 등을 바쳤지만 추사의 밥상까지는 감히 올리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다.

사실 제주 사람들에게도 옥돔은 비싼 생선이었기 때문에 제사나 명절 그리고 생신상에 올리려면 미리 준비해야 했다. 또 평소엔 된장국에 ‘송키(푸성귀)’만 먹다가도 타지에서 지인이 오면 으레 옥돔미역국이나, 옥돔무국 혹은 옥돔구이를 대접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하면서 제주의 옥돔구이를 비롯해 갈칫국, 성게국, 고기국수, 자리물회, 한치물회, 빙떡을 제주 7대 향토음식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제주 음식의 가치가 전 세계에 더욱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일락 ‘말’락 귀한 보물, 보말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보말—

Q 웹툰니스트라이프



‘고등’을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제주에서는 고등을 가리켜 ‘보말’이라 한다. ‘보말’도 ‘촘그메기’, ‘돌포말’, ‘웬보말’, ‘메옹이’, ‘가메기보말’, ‘먹보말’, ‘수두리’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 속담에는 선인들이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지혜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보말도 궤기여’라는 속담은 ‘고등도 고기다.’ 즉, 자잘한 고등도 맛있는 먹을거리가된다는 뜻이다.

고등은 자연산 바닷고기만큼이나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풍부해 아이와 어른의 영양식으로 최고다. 먹을거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 제주 사람들은 밭과 바다를 오가며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 보말이라도 채취해 먹이며 아이들을 키웠다. 지금은 보말국도 사서 먹어야 할 정도로 귀한 음식이 됐지만, 어쩐지 편의점에 익숙한 아이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듯하다.

보말을 잡으려면 물때, 숨은 장소, 이름 등을 잘 알아야 한다. 또 이것을 먹으려다 보니 삶는방법, 꺼내는법, 요리 비법 등도 저절로 알게 된다. 비록 크기가 얼마 되지 않은 보말이지만, 이를 통해 먹을거리의 부족을 탓하기보다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배운다. 흔했던 해산물이 점점 귀해지고 잊혀가니 그 소중함을 더욱 느낀다. 제주어도 그렇다.

마당을 쓸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깨끗하게—

Q 웹툰니스트라이프



‘지저분한 것이 없이 깨끗하게’의 뜻을 가진 제주어는 무엇일까?

정답은 ‘ㅋ콜호게’, ‘콜콜호게’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우리 조상들은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쓰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방, 마루, 마당은 물론 올레까지도 쓸어야 하니, 저마다 아침이 바쁘다.

소지황금출 개문만복래(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는 ‘마당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는 의미이다. 더러 동전을 줍는 행운도 얻는다. 만사형통하려면 평소에 마당을 쓸 듯 마음가짐을 깨끗해야 한다.

예전에는 다들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기에 마당에서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마당은 곡식이나 빨랫감을 말리는 곳, 경조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한여름에는 별빛 침대가 돼 주었다. 집안 식구들이 출입하려면 반드시 마당을 거쳐야 하며 친척이나 이웃들도 마당에 와서 신고식을 해야 했다. 그러니 마당은 언제나 잘 정돈돼야 했고, 그 집안을 가늠하는 거울이 되기도 했다.

밭의 잡초를 매거나 산소를 벌초하는 것처럼 마당의 상태도 방바닥같이 ‘ㅋ콜’해야 마음이 편하다. 거리에서, 운동장에서의 빗질하는 이를 본다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와 함께하는 ‘生生제주어Ⅳ’⑫

담담하게 서 있는 돌담덜, 누게가 다와신고?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석공—

Q 웹툰니스트라이프



‘돌을 깨고 다듬고 쌓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돌챙이’ 또는 ‘석쉬’이다. 표준어로는 ‘석수(石手)’, ‘석공(石工)’, ‘돌장이’에 해당한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도는 화산섬이어서 빨길 닿는 곳마다 온통 돌밭이다. 바닷가 까만 용암밭에서 온갖 해산물이 자라고, 용암숲 곳자왈에서는 희귀 야생동물이 산다. 밭담도, 올레담도, 산담도, 방사탑도, 동자석도, 돌하르방도 저마다 사연을 갖고, 하늘 아래에 담담하게 서 있다.

제주 밭담은 밭의 경계를 구분 짓거나, 말이나 소 등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 쌓은 돌담으로, 구불구불한 풍광이 제일이다. 동네마다 밭담의 높이와 길이가 천차만별이며, 어떤 밭담은 성벽(城壁)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튼튼하게 축조돼 있다. 보통 밭담은 돌을 한 겹으로만 에둘러 놓는 ‘외담’으로 쌓지만, 간혹 돌을 이중으로 맞대어서 ‘겹담(접담)’으로 쌓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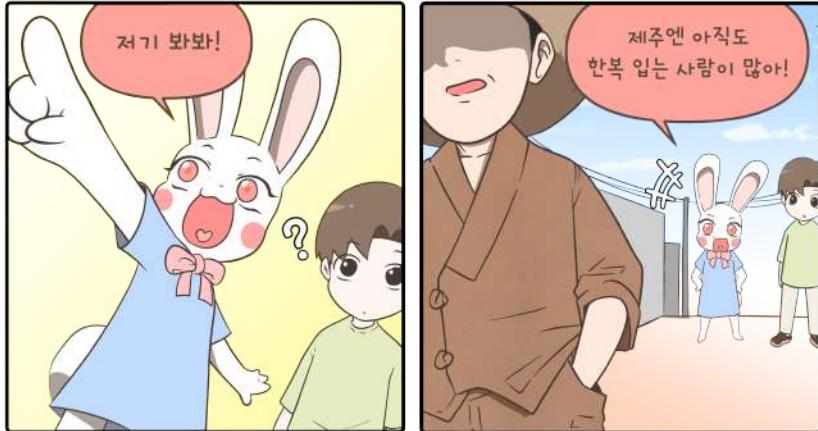
제주 밭담은 2014년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주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달하고 형성돼 온 농업 문화를 다음 세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이처럼 제주 밭담은 제주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깊이와 넓이가 스며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옷감이 워낙 귀해서 갈아입을 옷이 없었지?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갈웃—

Q 웹툰니스트라이프



‘풋감을 으깨어 물을 들여 만든 제주의 작업복’을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요?

‘갈옷’ 또는 ‘감옷’이라 한다. 감물을 들였다고 해서 혹은 갈색의 옷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예전에는 육지와 왕래하기가 쉽지 않아서 생활용품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먹을거리는 해산물이라도 챙길 수 있었지만 옷감은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죽하면 남의 밭을 갈아주거나 김매기를 해주고서 갈옷을 얻었다.

기계식으로 짠 광목이 들여오기 전까지는 누에를 길러서 ‘멩지(명주)’를 짜고 ‘멘네(면화)’를 갈아서 ‘미녕(무명)’을 얻었다. 제주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근검절약이 몸에 배서 그런지, 옷을 아주 귀하게 다루었다. 예나 지금이나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지만, 밭에서 일을 하는 날이 많아서 작업복이 곧 평상복이다. 밭일로 옷이 더러워져도 잘 보이지 않고 바람도 잘 통해서 갈옷이 아주 유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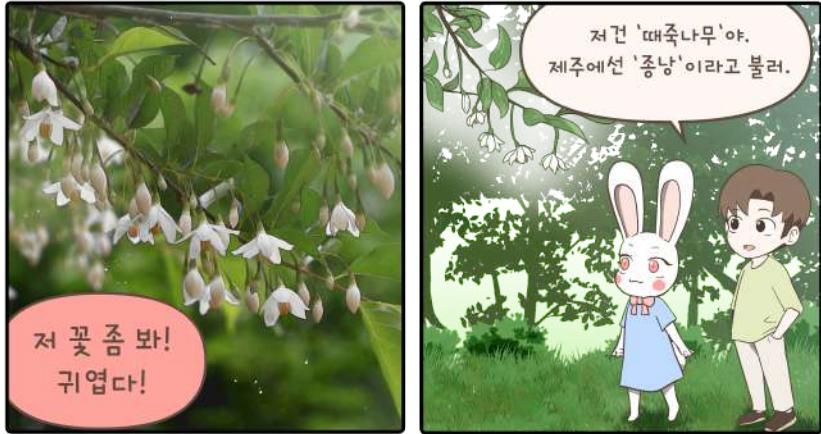
보통 갈옷의 윗도리는 ‘갈적삼’, 아랫도리는 ‘갈중의’라 부른다. 갈옷은 풀을 하지 않아도 몸에 땀이 나도 붙지 않고 까끄라기도 달라붙지 않아 일을 할 때 입기에 좋다. 이제 제주 갈옷은 일상복으로 즐겨 입기도 하고, 패션쇼에 등장할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가뭄에 오는 비는 자청비?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때죽나무—

Q 웹툰니스트라이프



‘때죽나무’를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이 나무의 껍질은 때가 묻은 것처럼 흑갈색을 띠며 꽃은 5~6월에 피고 열매는 가을에 익는다. 때죽나무를 제주에서는 ‘족낭’이라고 하는데 뒤에 오는 ‘ㄴ’ 때문에 받침의 ‘ㄱ’이 ‘ㅇ’으로 소리가 나서 ‘종낭’이라고도 한다. 하얀 꽃과 반질반질한 열매가 마치 종처럼 아래를 향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종낭’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세계본풀이는 일명 ‘자청비 신화’라고도 하며 농경의 풍요를 비는 무속 신화이다. ‘농사와 곡물의 신’ 자청비, ‘날씨의 신’ 문도령, ‘가축의 신’ 정수남 등 세 주인공은 삼각관계에 얹히고 얹힌 사연들을 기가 막히게 풀어간다. 이 신화에는 때죽나무를 비롯해 까마귀[가메기], 벼드나무[버디낭], 말[물], 소[쉐], 오리[올리, 올렝이], 누리장나무[개낭, 개똥낭], 청미래덩굴[벨레기낭, 맹개낭], 매미[재열], 등에[봉애기], 부엉이[옥밤] 등의 생물자원이 나타나며, 때죽나무는 자청비가 죽은 정수남을 살려낼 때 쓰인다.

장면은 이렇다. 정수남의 짓궂은 장난을 알아차린 자청비는 청미래덩굴 가지로 잠든 정수남의 귓속을 찔러 죽인다. 죄책감에 빠진 자청비는 서천꽃밭으로 올라가 환생꽃을 가져와 정수남의 시신에 올려놓고 때죽나무로 후려치니 깨어났다. 하지만 부모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자청비를 쫓아낸다.

자청비는 끝내 문도령과 재회해 생산과 풍요의 신으로 환생했기에, 제주의 밥상이 풍성해졌다. 한라산 숲의 종소리가 요란한 것은 자청비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버스정류장이 제주어박물관으로 변신했다며?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너랑 나랑—

Q 웹툰니스트라이프



제주어 ‘느영나영’은 표준어로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너랑나랑’이며 ‘돌이영 낭이영’은 ‘돌이랑 나무랑’이다. 제주민요 중에 하나인 ‘느영나영’은 남녀 사랑 이야기를 담은 가락이며 제주어 살리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야 한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소록흔디, 굴렁진디, 산도록흔디(움푹 팬 곳, 은근하고 포근한 곳, 구렁진곳, 선선한 곳 / 낭은 돌을 의지하고 돌은 낭 의지하고)(나무는 돌을 의지하고 돌은 나무를 의지하고) 2025년 5월 9일에 제주형 간선급 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고급화 사업으로 ‘섬식정류장’이 국내 처음으로 개통됐다. 섬식정류장은 양문형 버스를 도입해 한 정류장에서 양방향 출·도착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정류장은 대기 장소인 밀폐형 공간과 승·하차 장소인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냉난방기, 온열의자, 충전시설, 버스정보안내기, 영상 모니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 첨단 편의시설을 완비했다. 그리고 기존의버스 정류소처럼 섬식정류장 앞뒤의 외곽 유리벽에도 제주어 동요 가사를 부착해 누구나 제주어 보전 캠페인에 동참하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

제주어야, 너 나하고 놀게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혼자-

Q 웹툰니스트라이프



‘혼자’를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혼제’, ‘혼자’, ‘혼체’이며, ‘함께’의 제주어는 혼‘디’, ‘훔끼’, ‘훔치’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 속담 ‘먹돌도 뚫람시민 고망난다’는 ‘살암시민 살아지는 것처럼, 아무리 센 바위라도 뚫으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살다 보면 생기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많아지고, 자포자기할 정도로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제주어의 입장이 돼 보면 어떨까.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을 만나 즐거웠고, 자연과 상생하는 법을 가르켜 주고, 자신을 통해 사람들 간의 다름과 틀림을 조정해주고, 배려의 진심을 느끼게 해줬다. 시대는 첨단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은 홀로 지내는데 익숙해지고, 가슴이 뜨거운 친구보다 뭐든 속속 알려주는 인공지능 로봇을 더 좋아한다. 제주어도 아이들보다

에이아이(AI)하고 놀고 싶어 한다. 에이아이는 혼자서도 잘 하지만, 아이들은 여럿이 함께 노는 게 더 유익하다.

제주어가 외롭지 않게 아이도 에이아이도 함께 노력하면, 제주어도 날개를 달고 날지 않을까요.

‘대움햇당’은 상대방이 달려든다니깐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방심-

Q 웹툰니스트라이프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 또는 방심하다’를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대움하다’ 또는 ‘대옴하다’이다. ‘잘도 대움하는 아이여’는 성격이나 행동이 ‘걱정하지 않고, 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명심하지 않는 녀석’이라는 뜻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새들은 천적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교묘히 몸을 숨기거나 주변과 비슷한 색으로 보호색을 띠어 위장한다. 늘 경계 태세로 ‘대움’하지 않는다. 동박새는 나뭇가지를 오가며 잎 뒷면에서 숨 쉬는 애벌레를 낚아챈다. 몸도 작고 워낙 잔걸음으로 움직인다. 좀처럼 큰 새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카메라에 담기도 어렵다. 그런 동박새도 날지 못하는 쇠살모사에게 포식당한다.

동박새는 목욕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물가에 오가기를 반복한다. 배고픈 쇠살모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동박새를 기다리며 몸을 돌담에 바짝 붙이거나 웅크리고 있다가 잽싸게 달려든다.

그렇게 잠시 ‘대움’한 동박새는 운명하고, ‘대옴’하지 않은 쇠살모사는 생을 지킨다. 우리 주변에는 늘 강자들이 노리고 있다. 대범함과 끈기도 중요하지만, ‘대움하는’ 방심은 금물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와 함께하는 ‘生生제주어Ⅳ’ ⑯똑바로

선서! 졸지 않고 ‘졸바로’ 말하겠습니다

제주어
졸바로 연구소

-똑바로-

Q 웹툰니스트라이프



‘비뚤어지 않고 똑바르게’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졸바로’ 또는 ‘졸바르’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나이나 지위에 맞지 않는 말실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품격은 내려간다. 그러지 말라고 지적했다가 되려 편장을 듣기도 한다. 스마트폰 속 정보를 들이대며 남의 말을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주장이 더 옳고 제대로 된 정보라고 우기는 사람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의견 충돌이나 갈등 조짐이 발생하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줄어드는 추세다.

빠른 의사결정을 강조하면서 정작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는 사라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보통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바른 생각과 대처가 절실하다.

사람도, 돈도 바르게 알아야 대처하고 아낄 수 있지만 모르면 모를수록 남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다. 제주어는 어떨까. 제주어를 ‘졸바로’ 알지 못하면, 제주어에 숨어 있는 참뜻도 ‘졸바로’ 전하지 못한다. 이제라도 제주어를 통한 무한한 옛사람들의 생활 속 지혜를 ‘졸바로’ 알고, 잃어버린 제주정신을 ‘졸바로’ 회복해야 할 때라 본다. 제주어 보전은 제주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여덟 가지 중 ‘진’짜 ‘독’하게 살아남은 진드기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진드기—

Q 웹툰니스트라이프



‘진드기’를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진독’ 또는 ‘진뚝’이다. 마소 등의 피를 빨아먹고 성체가 된 진드기는 ‘부구리’라고 한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나비박사 석주명(1908~1950)은 제주를 ‘돌, 바람, 비, 말[馬], 여자, 까마귀, 고사리, 진드기’ 여덟 가지가 많다며 ‘팔다(八多)의 섬’이라 불렀는데 세월이 흘러 이들 자원은 제주의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했다.

돌로 쌓아 올린 밭담은 세계농업유산으로, 바람은 재생에너지로, 비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마시는 물로, 말은 제주마산업특구로, 바다에서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자인 해녀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까마귀는 방사탑과 자청비의 스토리텔링으로, 고사리는 청정 자연산 웰빙 음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유일한 한 가지, 진드기는 여전히 경계 대상으로 남아 있다.

노랑배진박새도 진드기에 물려 박제된 사례가 있다. 오랜 시간 여덟 가지 많은 것 중 살아남은 진드기도 중요한 생태계 내에서는 균형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에 없어선 안 될 존재다. 이를 적절히 보호·관리하며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 볼 시간이다.

‘엥그리멍’ 공부해야 기억에 남지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낙서–

Q 웹툰니스트라이프



아무렇게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함부로 그리다'를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엥그리다' 또는 '엥기리다'이며, 표준어로 '낙서하다'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시대에 따라 공부 요령도 변하고 있다. 서당에서 공부할 때는 책과 종이가 워낙 귀한 시절이어서 쓰는 것 보다 잘 들어야 했다. 종이가 없다 보니 글씨도 또박또박 써야 했다. 이후 책과 공책이 보급되면서 책의 내용을 필사하거나 연습지에 몇 번이고 옮겨 적으며 공부했다. 특히 영어 단어 암기 대회를 앞두고, 누구의 낙서장에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성적이 결정되기도 했다. 학교나 도서관에 가면 온종일 책상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들은 대개 낙서하듯 공부하는 우등생이다.

요즘은 어떨까? 이어폰, 스마트폰, 노트북을 갖고 카페를 찾는 것이 대세이며, 심지어 버스나 도시공원에서도 낙서없이 공부한다. 인공지능이 나타나 깔끔한 글을 써 주기도 하고, 피카소 그림도 그려준다. 그런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걸려 있는 작품들이 낙서에 의해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창의적인 낙서는 잠재력을 끌어올리지만 자칫 개념 없는 낙서는 애써 지켜온 문화유산을 망칠 수도 있다.

‘남을 도르지’ 않고 둑지 양보할 줄 아는 새는?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딱따구리—

Q 웹툰니스트라이프



딱따구리는 제주어로 무엇이라고 할까?

제주에서는 딱따구리를 ‘남도로기’ 또는 ‘남도로기생이’라 부른다. 제주어에서 ‘남’, ‘낭’은 나무를 의미하며 ‘도로기’는 ‘둥글게 빙 돌려서 베거나 파다’를 뜻하는 ‘도르다’ 또는 ‘돌르다’에서 온 말로 보인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큰오색딱따구리는 해발 400 이상의 낙엽활엽수림지대에 고루 분포하며 사는 새다. 딱따구리는 나무를 두드려서 상대방에게 신호를 전달하는데, 특히 번식기에는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교적 크게 두드리는 경향이 있다. 제주의 한라수목원에서도 번식하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큰오색딱따구리를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큰오색딱다구리는 제주도 상징새로 지정돼 있다. 지정의 이유는 크게 다섯가지. 우선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에 살고 둘째, 일 년 내내 볼 수 있는 텃새이기 때문이다. 셋째, 산림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숲에 매우 이로우며 넷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균면성실한 새다. 다섯째 번식했던 구멍은 몸집이 작은 박새, 곤줄박이, 흰눈썹황금새 등에 양보할 줄도 안다. 이러한 큰오색딱따구리의 모습이 바로 제주 도민의 균면과 배려 그리고 희생정신과 다르지 않다. 지리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온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을 큰오색딱따구리를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참새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한다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참새–

Q 웹툰니스트라이프



참새를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촘생이’ 또는 ‘촘새’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도 전역의 인가 주변에서 사는 텃새 ‘촘생이’는 초가가 사라지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이 때문일까? ‘촘생이’는 가는 곳마다 짹짹거리며 대책 회의를 하느라 바쁘다. 올레길을 걷다 보면 마을 정자의 기와지붕 틈새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한 참새 부부를 만난다. 초가에서 기와집으로 이사는 했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안쓰러워 보인다. 종종 수백 마리가 가로수에 앉아 잠을 자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여유롭지 못하다. 먼 훗날, ‘참새는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아 멸종됐다’라고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촘생이’뿐만 아니다. ‘촘깅이’(참게), ‘촘?메기’(개울타리고등), ‘촘가시낭’(참가시나무), ‘촘소왕이’(엉겅퀴), ‘촘웨’(참외), ‘촘지름’(참기름)도 위태롭다. ‘촘’이 들어간 이것들은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의미로, 식용 자원으로 아주 유용하고 늘 가까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많아서 언제든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수입품이 늘어나면서 제주의 참모습을 지닌 이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촘말’로 걱정인데 ‘촘말’(참말)하는 사람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제주의 땅속에 강이 흐른다고?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총향–

Q 웹툰니스트라이프



‘나무 아래 새(띠)를 땋아 매달아 놓고, 이슬,
빗물 따위를 받는 항아리’를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촘항’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에선 큰 비가 올 때만 하천의 물이 넘친다. 그러나 엄청난 빗물도 반나절이면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바다로 다 흘러가 이내 바닥이 드러난다.

제주 사람들에겐 물은 아주 귀한 생명 자원이다. 과거 선조들은 빗물을 받으려고 여러 방법을 활용했다. ‘새(띠)를 땋기 모양으로 땋아서 ‘촘’을 만들어 나무 기둥에 감싸고 그 아래에 큰 항아리를 놓아 물을 받았는데, 이 항아리를 ‘촘항’이라 했다. 또 쳐마 아래에도 항아리를 놓아두고 떨어지는 물을 받기도 했다. 이 물은 보통 생활 용수나 농업 용수로 사용했다.

하천이나 해안가에서 솟는 ‘나는 물’은 허벅으로 길어다 식수로 이용했으며, 목장에서는 가축에 먹일 물을 마련하기 위해 연못을 만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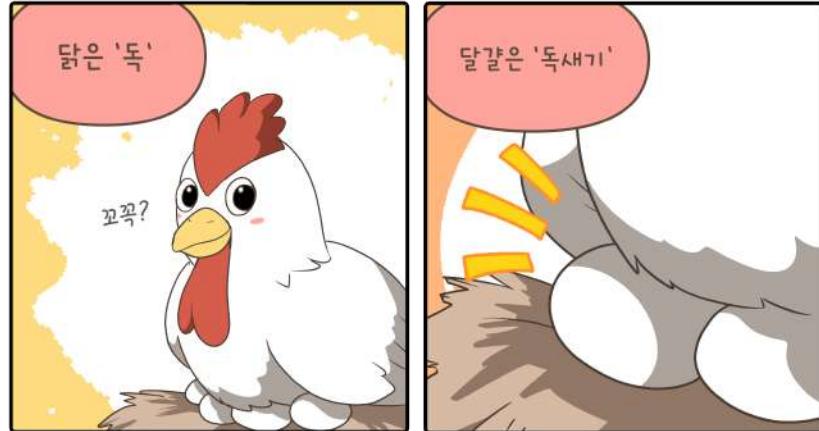
이제는 과거에 비해 강수량이 늘어났지만 용천수는 용출량이 줄어들었고, 수질 상태마저 좋지 못하다. 이러다가 지하수마저 뽑아 올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까 우려된다.

꿩 대신 ‘독’ ?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꿩알—

Q 웹툰니스트라이프



‘꿩알’을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꿩독세기’이다. 참고로 닭은 제주어로 ‘독’, 병아리는 ‘빙에기’, ‘달걀’은 ‘독세기’라 한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여름은 꿩이 성장하는 시기다. 꿩은 늦가을이 돼야 비로소 살이 오르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대체로 겨울에 꿩을 잡아 요리해 먹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처럼 밭일, 들일, 바닷일을 하다 보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이 필요한 이때! 닭을 먹어 기운을 차리는데 제주의 세시풍속 중 음력 6월 20일은 독‘잡아먹는 날’로 알려져 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 집집마다 닭을 키웠다. 식구들에게 닭고기를 한 점이라도 넉넉히 먹이려면 정월에 부화한 병아리인 ‘정월빙에기’를 미리 구해서 길러야 한다. 삼월에 부화한 병아리 ‘삼월빙에기’는 덜 성장하기 때문에 몸보신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독텅에’는 닭이 들어앉아 있으면서 알을 낳는 곳으로, 처마 안쪽에 걸어 놓기도 한다. 마당에서 놀던 병아리는 ‘소로기(솔개)’나 ‘가메기(까마귀)’에게 낚이는 경우가 많아서다.

오늘 저녁은 ‘독텅에’에서 태어나 정월부터 잘 키워진 닭으로 만든 삼계탕 아니면 치킨으로라도 더위로 기력이 쇠한 몸을 보충해 보면 어떨까?

“나이가 많은 어른이 아이보다 더 버린다고?”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젠장—

Q 웹툰니스트라이프



‘젠장, 제기랄, 아이고’의 뜻으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날 때나 안타까울 때 내뱉는 말을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나야더리’, ‘네야더리’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 바다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남방큰돌고래가 연달아 목숨을 잃었다’ 할 만큼 해양쓰레기로 가득하다. ‘플라스틱 제로’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다.

해상에 떠도는 폐그물이나 비닐은 돌고래, 거북이의 입과 지느러미를 옮아매고, 낚싯줄은 갈매기와 가마우지를 죽인다. 쓰레기를 치우는 캠페인도 점점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바다 수온의 상승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발생량마저 높아지면서 어민도, 돌고래도 불평 지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쓰레기를 만들고 버리는 사람들을 향해 설득해도 고집불통일 때는 정말이지 인내심이 폭발한다. ‘나야더리, 작산 사름덜이 무사 경 햅신고?(젠장, 어른들이 왜 그렇게 할까?)’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 어른은 되기 쉽지만 어른스러움은 정말 어렵다.

제주의 민주주의는 바닷가에서 시작됐다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불턱—

Q 웹툰니스트라이프



‘해녀들이 물질한 후에 나와 언 몸을 녹일 수 있게 만든 공간’을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불’과 ‘덕’ 두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불덕’이다. ‘불덕’은 오늘날 민주주의 플랫폼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의 해녀들은 육지에도 바다에도 ‘밭’(밭)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하루종일 밭에 머무는 셈이다. 마늘밭이나 당근밭에서 일하다가도 물때가 되면, 바다밭으로 향했다. 마을별로 정해져 있는 공동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며 나이와 실력에 따라 작업 장소를 정하기도 했다.

불덕은 해녀들이 물에 들고 나는 장소에 지은 시설로, 바람이나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돌담으로 에워싸여 있다. 이곳에서 물질 도구를 점검하기도 하고 ‘물옷’을 갈아입기도 했다. 특히 불을 쬐거나 옷을 말리면서는 동네의 경조사나 각종 회의를 진행했다. 불덕의 보수, 땔감 당번, 간식 준비, 경조사, 사적인 대화 등 온갖 일이 이곳에서 정리되며 심지어는 남편이나 자식들의 흥까지도 볼 수 있던 장소였다.

지금의 관공서와 스마트폰의 역할을 과거 불덕이 대신했던 것이었다. 직접참여, 의견 수렴, 공론화와 숙의 과정, 공동체와 배려, 모범과 책임 등 민주주의 불꽃이 불덕에서 피어올랐다.

제주 사람들은 다 닮았다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바탕—

Q 웹툰니스트라이프



‘바탕’ 또는 ‘근본이나 품성’을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바투리’다. 누군가가 “자인 축웃이 아방 바투리여”라 말한다면 “저 아인 영락없이 아버지 닮았다”로 이해하면 된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바탕, 즉 제주 정신은 후세들에게 전승해야 문화유산이다. 제주다움을 대표하는 3가지는 ‘조냥’, ‘수눌음’, ‘삼무’로, 절약하고 대비하는 정신,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하는 정신, 도둑·거지·대문이 없는 존중·근면·신뢰를 중시하는 정신이다.

제주 속담 중에 ‘어멍 좁쌀만씩 벌어 오민 아덜 물뚱만씩 먹나’는 말이 있다.

어머니가 좁쌀만큼 벌어 오면 아들이 말뚱만큼 먹는다로 대역되는데, 그 속에는 부모가 애써 힘든 일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위한 끼니를 벌어 오면 자식들은 그 속도 모르고 그저 제 배만 불려 먹어 치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시대가 바뀌니 제주 정신을 자꾸 잊고 산다. 제주의 바투리 세 가지는 누구나 지녀야 할 보편적 가치다. 특히 ‘조냥’ 정신을 잊으면 제주어도 까먹는다는 점도 잊지 말고 살아가자.

나무도 종류별로 쓰임새가 달라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쟁기—

Q 웹툰니스트라이프



‘밭을 가는 농기구’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잠대’이며 표준어로는 쟁기이다. 보통 쟁기는 소를 이용해 끌었다. 쟁기는 ‘양주머리(양지머리), 설 칫(한마루), 성에(성에), 몽클(쟁깃술), 벳(벗), 보섭(보습)’ 등으로 구성되며 부위별로 기능이 다르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어디레 감서?” 하면 “상산더레 자귀낭허레 감서”라고 한다. 동네 사는 어르신이 먼저 “어디 가고 있어?”라고 물으면, 상대방이 ‘높은 산으로 자귀나무 베려 간다’고 대답한다.

해안가에 사는 사람은 한라산 방면에서 나무를 구하다가 길을 헤매기도 한다. 쟁기나 따비처럼 단단한 목재를 구하는 것은 ‘웃드르’ 사람에게 부탁하는게 더 빠르다. 중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식물 전문가 못지않게 나무의 제주어 이름까지 도통한 경우가 많다. 어디에 무슨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꽃과 열매는 언제 볼 수 있고 그 나무의 줄기 굵기 정도와 쓰임새까지도 신통하게 알고 있다.

사오기(왕벗나무), 굴무기낭(느티나무), 폭낭(팽나무), 숙대낭(삼나무), 먹쿠실낭(멀구슬나무), 윤노리낭(윤노리나무), 조베낭(구실잣밤나무) 등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엉뚱한 나무로 속여도 알아차릴 수가 없다. 굵기와 길이가 적당하고 잘 휘어지고 잘 구부려져야 가공하기 쉽고 오래간다. 소나무 대신에 자귀나무로 만든 쟁기가 오래 남듯 제주의 자연과 인심도 지속돼야 한다.

영장밧디서 상제가 주는 떡, 먹어 봐?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피력떡—

Q 웹툰니스트라이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장지에서 친족과 상두꾼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피력’, 혹은 ‘필역’이다. 육체적으로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을 마친다는 뜻의 ‘필역(畢役)’에서 온 말이다. 이때 나눠 주는 떡을 ‘피력떡’, ‘필역떡’이라고 하는데 장사지내는 동안 도와준 분들에게 장지에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등절비’로 쌀가루를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찌거나 삶아낸 후에 팥고물을 묻힌 떡이며 ‘등절미’라고도 한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예전에 영장(永葬)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거들었고 상제들은 상황에 따라 감사의 표시로 보통 식사나 떡을 준비하지만 상제별로 또 달랐다. 남원읍 위미2리에서는 첫째 딸은 ‘조반상제’, 둘째 딸은 ‘점심상제’, 셋째 딸은 ‘우동상제’, 막내딸은 ‘피력상제’라 했다. 지금은 발인 전날인 일포날 점심이나 저녁에 조문을 가지만 예전에는 아침에 손님이 많았다. 상여를 매는 상두꾼을 비롯해 친지들, 상제의 벗들, 이웃 삼촌들 그리고 아이들도 상가(喪家)에서 아침밥을 해결했다. ‘조반상제’를 맏딸이 맡는 이유는 먼저 결혼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력상제’는 주로 막내딸이 담당하는데 장지에서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떡을 준비했으며, 이는 어린 상제를 생각하는 손위 자매들의 배려였다. 요즘은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공동으로 라면, 커피, 상품권 등으로 답례하거나 자기 능력껏 대접한다. 배려는 상대를 위한 열린 마음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제주어가 AI를 만나 회오리치듯 신바람 탔다네요

제주어
줄바로 연구소

-회오리바람-

Q 웹툰니스트라이프



‘회오리바람’을 제주어로 무엇이라 할까?

정답은 ‘돗갱이’다. ‘돗갱이’, ‘돗깽이주제’, ‘돌깽이’, ‘돗공이’, ‘돗챙이’라고도 한다.

‘이럴 땐 이렇게 써요’

제주 사람들은 ‘부름’(바람)의 방향에 따라 하루를 시작한다. 동풍은 ‘셋부름’, 서풍은 ‘갈부름, 늦부름’, 남풍은 ‘마부름’, 북풍은 ‘하늬부름’, 갑작스레 거칠게 부는 바람은 ‘강챙이’, 그리고 갑자기 회오리치듯 거세게 몰아치는 ‘돗갱이’까지 바람 이름도 다양하다.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대처해 온 덕분에 제주 사람들은 강풍과 역풍을 잘 견딜 수 있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웹사전 구축해 제주어 사전 기능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제주어는 제주의 역사, 민속, 문화, 자연을 비롯해 개인의 생애사, 마을의 개척사, 지역의 개발사, 인류의 바람 등 모르는 것이 없다. 또한 제주어는 한자, 표준어, 몽골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과 만나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인공지능(AI)과도 악수하며 말할 수 있다. 앞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제주어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은 물론이고, 제주어를 만난 AI도 ‘돗갱이’처럼 격렬하게 춤출 것이라 기대해 본다.

20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와 함께하는

‘生生제주어,

펴낸 곳 | 제주매일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37.

전 화 | 064-747-8111

인 쇄 | 보노디자인

발행일 | 2025년 11월 1일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Copyright © 2025 제주매일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발행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매일

제주어는 보존해 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20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와 함께하는

‘生生제주어’

제주매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www.jejumaeil.net/>

YouTube <https://www.youtube.com/@제주매일-g51>

facebook [facebook.com/제주매일](https://www.facebook.com/제주매일)



제주매일



제주학연구센터 와 함께하는
‘生生제주어’,